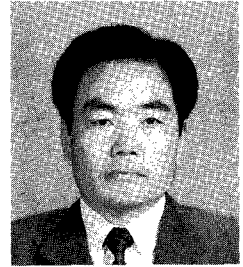


“계란 수입에 따른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가!”



천 강 균
애농원 대표

금년은 그동안 축산업계에 몸살을 앓게 했던 WTO 체제의 서막이 열리고 우리 채란 업계도 지금까지 막아 왔던 전란액 11,709.5톤이 킬로그램에 따라 수입되게 된 해이기도 하다.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의 개방된 시장의 바탕 위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철저한 자유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음을 타종(打鍾)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채란업계는 국제경쟁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급변한 세계적 추세에 적응할 체질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현실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제 경쟁력을 길러내기 위하여서 기초적 기반이 허약한 양계업계의 문제점들을 재검토해

보고 이러한 난제들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양계산물의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은 어떠할까?

우선 사양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성, 질병발생 시 약품투여에 의한 안전성,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적인 안전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가 발달될 수록 식품에 대한 관심은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양에서 질을 따지게 되고 최근에는 특히, 위생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산자 스스로 소비자들이 변화해 가는 기초 성향을 간파하여야 한다.

농장내에서의 계란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일회용 종이난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오란과 파란의 처리는 물론 상인에게 판매하기전 창고의 보관상태도 지금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보강하여 청결한 저온창고를 농장규모에 맞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계란의 품질면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높여야 하며 질병 발생시 무절제한 항생제의 투약은 계란의 항생물질 잔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만일의 경우 그러한 계란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상상해보면 계란은 식품으로써의 안전성 문제가 소비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말 것이므로 사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 치료보다는 방역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위생적 측면에 있어서 또하나의 큰 문제는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인데 이점은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인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완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회용 종이난좌 사용을 강력하게 의무화시켜야 한다.

글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오염된 프라스틱 난좌를 계속 사용하면서 식품의 안전성을 얘기할 수 없으며 경쟁력을 함양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생산기반의 기초는 태풍에 견딜만큼 튼튼할까? 이는 종계관리의 헛점, 시설기자의 경쟁력, 질병컨트롤 체제의 정립, 인력관리의 고충, 사료품질 및 기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덴마크나 이스라엘에서는 종계장에서 마이코플라스마, 살모넬라, 추백리 등이 검출되면 그 계군을 전부 폐기 처분한다고 한다. 질병이 발생된 종계장은 이미 종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

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육계를 기르던 보온덮개 하우스에서도 종계를 위탁 사육시키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종계를 강제 환우 시키는 것도 비밀비재하다. 선진국들은 종계를 강제환우 시키는 일이 없다고 한다. 우리도 종계장 관리지침을 강화시켜서 당국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기자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최상의 국산기자재 생산이 가능하도록 측면 지원 함으로써 값비싼 외제를 설치해 놓고서도 애프터 서비스를 제때에 못 받아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현실을 타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질병 컨트롤 체제의 정립은 종계관리 문제와 중복된 얘기가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질병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법의 집행과 생산자 단체에서도 기능을 강화하여 감시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농장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인력난을 들고 있다. 인건비는 과거에 비해 몇곱이 인상됐음에도 일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양관리가 잘 안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만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연수생들을 양계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사료품질 및 기타 문제점들도 양계업자 스스로 해결하기는 아직은 난해한 점이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규격미달된 품질의 사료를 만드는 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가하여 감히 사료품질로써 장난질(농간)하는 풍조는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양계업계의 조직체계는 짜임새가 있으며 과연 외세에 대처할 힘이 있는가? 양계업

계 조직의 일원화, 양계협회 기능의 강화, 양계업자의 의무적 회원제, 축산업협동조합의 개편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투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래알처럼 흐트러진 채로 단합되지 않고서는 밀려오는 파고를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를 정점으로 전국의 모든 양계업계의 조직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양계협회와 양계협동조합의 조직과 기능도 조화시킬 필요가 있고 상호 보완작용을 하여야 하지만 조합도 협회 체제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양계업자들 대부분은 지역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다. 실제로 양계업을 하면서 협회에 참여하지 않고있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양계업계의 자율적 통제력도 없고 공동 대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응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협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협회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양계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권한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방관자들 때문에 발전이 안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예를 들면 자조금 문제도 법적으로 근간은 만들어졌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자조금이 형성되어야 계란의 홍보활동도 하고 협회의 여러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궁극적으로 양계업의 발전을 기하고 외국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 기구의 확대와 조직화의 필요성은 이뿐만 아니다. 각 지구별 조직이 잘 짜여 진다

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통소개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더불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루속히 우리 양계업자는 모두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회원제가 아니면 일체의 상거래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축산업 협동조합은 각종 업종별 협동조합으로 세분화 해서 업종별로 전국단위의 협동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신용업무 확장에만 열을 올려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조합을 위한 조합원이 된듯한 현실을 과감히 타결함으로써 WTO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축산인이 되도록 지도·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제는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란계의 사육수수가 늘어나는 것을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총사육규모를 4천만수 안팎에서 자율조절함으로써 계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사육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육규모의 쿼터제도를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이상의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나 계란수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자세로 합당한 해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 전국의 양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양계**

